



유통·식품기업
K-푸드
글로벌로 전파
니



Life

정몽구재단
세대 잇는
클래식 앙상블
L4



1. 삼육대 학생들이 캠퍼스 뒷밭(노작교육장)에서 '노작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삼육대 캠퍼스 전경. 3. 지난 4월 삼육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연계 나눔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땀 흘려 배운 생명과 나눔... 120년 텃밭서 '상생' 가꾸다

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삼육대학교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대 전략 방향 및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대학의 ESG 실천을 상징하는 콘텐츠는 교양필수 과목 '노작교육'이다. 1906년 개교부터 이어온 텃밭 농사 수업인 노작교육에는 매년 신입생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삼육대는 노작교육의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한 데 이어,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을 대학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120년 노작 효과, 데이터로 증명

노작교육은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땀 흘려 노동하며 신체 건강과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삼육대의 교육 철학에 따라, 1학년 신입생들은 한 학기 동안 매주 2시간씩 노작교육을 수강한다. 최근에는 기존 수업에 ESG 역량 프레임워크와 탄소중립, 생태순환 교육 요소를 접목하는 등 교과 내용도 다듬었다. 학생들은 씨 뿌리기부터 거름 주기, 수확까지 15주에 걸친 친환경 농업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이론으로 배우고(배움) 직접 재배하고(실천) 그 결실을 지역사회에 나누는(나눔) 순환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노작의 교육적 가치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14일 삼육대에 따르면, 유아교육과 신지연·이유진 교수와 교양교육원 이사무엘 강사로 구성된 연구팀은 '삼육대학교 교육이념 기반 ESG 노작교육 효과 검증: 생태감수성, ESG 인식 및 핵심역량 증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1학기 노작교육 수강생 등 신입생 452명을 대상으로 혼합연구(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결합)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작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보다 ▲나눔실천역량 ▲생태감수성 ▲소통역량 ▲시민의식 등 9개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심층 인터뷰, 성찰 일지 등 질적 연구에서도 학

개교 120주년... '노작교육' 효과 실증 배우고 재배하고 나누는 순환구조 익혀 체험형 학습으로 대학 ESG 교육 실천 직접 가꾼 농작물, 지역 소외계층으로 나눔으로 생명의 가치·사회적 책임 배워

탄소중립 캠퍼스 'SU-RISE' 프로젝트 돌봄습·마을지도 제작 등 지역상생 확대 120주년 맞아 120만원 기부 릴레이 확산

생들은 조별 협업과 수확물 기부를 거치며 ESG 개념을 일상에서 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학 ESG 교육이 흔히 미주하는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텃밭 기반 학습이라는 체험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120년간 이어온 전인교육 전통과 '배움-실천-나눔'의 순환 구조가 생태적 책임과 공동체적 실천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유효한 교육 모델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나눔으로 완성되는 노작교육

노작교육의 결실은 학교 밖에서도 빛을 발한다. 삼육대는 지난 4월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포천시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산하 3개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나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캠퍼스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제공하면 각 복지기관은 이를 지역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식탁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에는 교내 노작교육장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을 초청한 '제1회 이웃사촌 유기농 페스티벌'도 열렸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가꾼 고추와 가지 등 친환경 농산물을 체험장에서 직접 수확했다. 삼육대는 노작 수확물의 활용 범위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넓힌 뒤, 이를 다시 주민 참여형 행사로 키우고 있다. 김명희 삼육대 교양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넘어 지역으로

삼육대의 환경·나눔의 가치는 대학 ESG 활동 전반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SU-RIS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는 캠퍼스 지하에 복합단지 지하 공간을 확장하고, 지상은 자동차 없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탄소중립 선도 캠퍼스'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제해중 삼육대 총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삼육대가 지나온 세기를 매듭짓고 다음 100년을 여는 대규모 캠퍼스 마스터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삼육대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지역이라는 3중 규제와 용적률·고도 제한 등 물리적 한계 속에서 지하 공간 개발을 대안으로 택했다. 오는 10월 개교 12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 공헌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는 '삼육마을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학생들이 개발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SU-돌봄습'에 입점해 지역 수혜자와 매칭되며 창업 컨설팅과 연계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마을 지도 제작과 주민 생애사 기록을 결합한 '마을 in(人) 마을 프로젝트'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나눔과 투명 경영으로 ESG 완성

나눔 문화는 학교 구성원 안에서 확산하고 있다. 삼육대는 2024년부터 개교 120주년을 맞아 '감동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고액 기부자뿐 아니라 소액을 보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다. 아트앤디자인학과에서는 1학년부터 갓 졸업한 동문 학생 100명이 1만 2000원씩 보태 120만원을 만들어 학과 단위 기부 릴레이의 첫발을 뗐다. 지난 6월에는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교수진 전원이 뜻을 모아 각각 12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삼육대는 'ESG경영전략보고서'를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ESG 아이디어 공모전도 운영해 왔다. 예산집행과 규정 준수를 상시 감독하는 내부감사 제도를 갖추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대학평의원회 운영,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제고화했다.

이런 노력은 외부 평가로도 이어졌다. 삼육대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2024년 A등급에 이어 지난해 전국 138개 대학 가운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삼육대는 캠퍼스 인프라 혁신부터 학생 주도의 돌봄 서비스, 학내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는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다음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김수정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임시' 모레노호 1기 발표...손흥민·이강인에 정승원·김민수 깜짝 발탁
▲모레노 감독 "4-4-2 활용 예정...최근 K리그 분석한 결과" /사전 뉴스

▲키움 투수 박윤성·손현기·내야수 이재상 현역 입대
▲프로농구, 오는 29일 새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개최

▲여자 농구, 나고야 아시안게임 명단 확정...'부상' 박지수 제외
▲이정후, 5타수 무안타 침묵...송성문은 대수비 출전